

2019년 7월 26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드라기 발언 후 투심 악화되며 부진 드라기 ECB 총재 “경기 침체 위험이 상당하다”

미 증시 하락 요인: ①경기 둔화 우려 부각 ②공격적인 부양정책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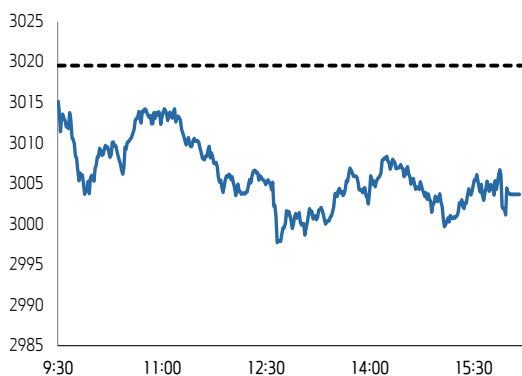
미 증시는 온건한 통화정책을 발표한 ECB 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진. 특히 드라기 총재가 경기둔화 언급한 이후 악재성 재료에 더 민감한 반응. 이후 실적 발표한 주요 기업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하락을 야기시킴.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된 반도체 업종이 하락을 주도한 가운데 에너지 및 대형 기술주가 부진(다우 -0.47%, 나스닥 -1.00%, S&P500 -0.53%, 러셀 2000 -1.20%)

유럽 주식시장은 ECB 통화정책 직후 온건한 움직임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상승하기도 했음. 그러나 드라기 ECB 총재가 “유로존 경기 침체 위험이 상당하다” 라고 언급하자 경기 둔화 우려로 매물이 급격히 출회. 이후 드라기 총재가 “ECB 는 더 많은 경기 부양책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진은 지속. 결국 유럽 주식시장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는 점이 부각되며 하락.

문제는 이러한 유럽 주식시장의 변화가 미 증시에도 영향을 줬다는 점. 미 증시는 장 초반 약 보합까지 반등을 주는 등 부진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움직임을 보여왔었음. 그러나 드라기 총재의 발언 이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에너지와 금융주는 물론 최근 상승폭이 컸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며 낙폭 확대. 특히 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실적 발표 기업들 대부분이 컨퍼런스 콜의 부정적인 내용에 민감한 반응 속에 매물 출회되며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음.

한편, 채권시장에서는 드라기 총재의 발언 이후 구체화된 계획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연준 또한 시장의 기대와 달리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시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 실제 드라기 총재 발언 이후 미국 채권 금리가 오히려 상승하고, 7 월 FOMC 에서 50bp 인하 확률이 감소(25%→19%). 결국 미 주식시장은 드라기 총재의 발언을 통해 ①경기 둔화 우려 부각 ②공격적인 부양정책 약화 등을 이유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추정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74.48	-0.38	홍콩恒生	28,594.30	+0.25
KOSDAQ	652.40	-1.13	영국	7,489.05	-0.17
DOW	27,140.98	-0.47	독일	12,362.10	-1.28
NASDAQ	8,238.54	-1.00	프랑스	5,578.05	-0.50
S&P 500	3,003.67	-0.53	스페인	9,289.90	-0.43
상하이종합	2,937.36	+0.48	그리스	885.99	+1.33
일본	21,756.55	+0.22	이탈리아	21,903.29	-0.8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시간외 주가: 알파벳 +8% 아마존 -2% 인텔 +5%

페이스북(-1.93%)은 양호한 실적으로 상승 출발 했으나 반독점 이슈가 지속되며 하락 했다. 테슬라(-13.61%)는 예상을 하회한 실적 발표 여파로 급락 했다. 자일링스(-3.44%)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에 대한 우려를 발표하자 하락했다. 3M(-0.72%)은 양호한 실적을 기반으로 급등 했으나 장중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 했다. 캐터필라(+2.12%)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이어지며 상승했다. 브리스톨마이어스(+5.02%)는 양호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 했다.

보잉(-3.69%)은 737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우스웨스트항공(+0.35%)이 보잉 737맥스 사용을 2020년 1월 5일까지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한 여파로 하락했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은 737맥스 사용 중단 불구 예상보다 약했으나 이익을 냈다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 전환에 성공 했다. 그러나 아메리칸 에어라인(-8.44%)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불구 전망을 하향 조정한 여파로 하락 했다. 스프리트항공(-23.69%)은 좌석당 매출 감소와 투자의견 하향 조정으로 급락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0.33%)은 시간 외로 8% 급등 중이며, 아마존(-1.35%)은 2% 하락 중이다. 인텔(-1.44%)은 실적 발표 이후 시간 외로 5% 급등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97%	대형 가치주 ETF(IVE)	-0.47%
에너지섹터 ETF(OIH)	-3.21%	중형 가치주 ETF(IWS)	-0.73%
소매업체 ETF(XRT)	-1.04%	소형 가치주 ETF(IWN)	-1.22%
금융섹터 ETF(XLF)	-0.66%	대형 성장주 ETF(VUG)	-0.64%
기술섹터 ETF(XLK)	-0.41%	중형 성장주 ETF(IWP)	-0.84%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21%	소형 성장주 ETF(IWO)	-1.27%
인터넷업체 ETF(FDN)	-0.92%	배당주 ETF(DVY)	-0.49%
리츠업체 ETF(XLRE)	-0.46%	신흥국 고배당 ETF(DEM)	-0.52%
주택건설업체 ETF(XHB)	+0.74%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54%
바이오섹터 ETF(IBB)	-1.40%	미국 국채 ETF(IEF)	-0.17%
헬스케어 ETF(XLV)	-0.49%	하이일드 ETF(JNK)	-0.06%
곡물 ETF(DBA)	-0.75%	물가연동채 ETF(TIP)	-0.16%
반도체 ETF(SMH)	-1.81%	Long/short ETF(BTAL)	+1.4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63.77	-1.16%	+0.44%	-1.21%
소재	369.95	-0.78%	+1.17%	+1.98%
산업재	662.30	-0.21%	+2.01%	+2.71%
경기소비재	975.69	-0.63%	-0.07%	+4.05%
필수소비재	613.65	-0.04%	-1.26%	+2.89%
헬스케어	1,060.39	-0.55%	-1.12%	-0.14%
금융	471.42	-0.59%	+1.18%	+5.12%
IT	1,441.26	-0.79%	+1.28%	+5.45%
커뮤니케이션	167.61	-0.08%	-0.07%	+3.30%
유틸리티	303.08	-0.30%	-2.45%	+0.66%
부동산	228.60	-0.48%	-1.29%	+1.3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하락 후 낙폭 축소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 는 1.37% MSCI 신흥 지수 ETF 는 0.88%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3,570 계약) 여파로 1.75 pt 하락한 272.0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82.7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주식시장은 드라기 총재의 발언 이후 성장 전망을 둘러싼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하락 했다. 즉 연준을 비롯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온건한 통화정책이 경기 둔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글로벌 경기 둔화가 발생하면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 둔화 우려는 OECD 경기선행 지수의 움직임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개선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둔화 우려는 일시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으나, 지속된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더 나아가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며 글로벌 주식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지난해 11~12 월 미 증시는 7~9% 조정을 보였으나, 미리 조정을 보였던 한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을 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 증시 변화 요인으로 한국 증시 조정이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한다.

한편, 미 증시 마감 후 아마존은 부진한 실적 발표 후 시간 외로 2% 내외 하락 중이나 알파벳이 양호한 실적 발표 후 8% 넘게 급등하고 인텔, 스타벅스 등도 6% 내외 급등 하고 있다. 특히 이 결과 마이크론을 비롯해 반도체 업종이 시간 외로 강보합을 보이고 있어 한국 증시에는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하락 출발 후 낙폭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애틀란타 연은,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1.3% 전망

7 월 미국 내구재주문은 전월 대비 2.0% 증가해 전월(mom -2.3%)이나 예상치(mom +0.5%)를 상회했다. 운송을 제외한 수주도 전월 대비 1.2% 증가하는 등 양호한 모습이었다.

7 월 캔자스시티 연은 지수는 전월(0)이나 예상치(2) 보다 부진한 -1 로 발표되었다. 제조업생산지수 등 대부분의 세부 항목이 부진한 결과로 추정한다.

애틀란타 연은은 GDPNow 를 통해 2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 지난 17 일(1.6%) 보다 하향 조정 된 1.3%로 전망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달러 강세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와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무역협상 등 상승요인이 많았으나, 상승폭은 제한되었다. 달러 강세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달러화는 유로화, 파운드화 등의 약세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ECB 통화정책 회의 이후 달러 대비 약세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경기부양 정책을 시사한 드라기 총재의 발언 이후 오히려 약세폭이 축소되었다.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서 구체화된 계획이 없다는 점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파운드화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높아지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내구재주문 개선 등에 힘입어 상승 했다. 더불어 드라기 총재가 경기둔화 우려를 자극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을 시사하지 않자 채권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인하 계획에 대한 의구심이 부각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실제 CME 는 FEDWatch 를 통해 7 월 FOMC 에서 50bp 인하 확률에 대해 하향 조정(25%→19%) 했다.

금은 달러 강세 영향을 받아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영향을 받아 소폭 둔화되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20% 하락했으나 철근은 0.87%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6.02	+0.25	+1.08	Dollar Index	97.797	+0.07	+1.04
브렌트유	63.39	+0.33	+2.36	EUR/USD	1.1146	+0.05	-1.16
금	1,427.50	-0.63	-0.92	USD/JPY	108.66	+0.43	+1.27
은	16.411	-1.29	+1.31	GBP/USD	1.2453	-0.25	-0.77
알루미늄	1,826.00	0.00	-1.51	USD/CHF	0.9909	+0.62	+0.97
전기동	6,007.00	+0.13	+0.40	AUD/USD	0.6952	-0.36	-1.74
아연	2,440.00	-0.77	-1.01	USD/CAD	1.3159	+0.13	+1.01
옥수수	427.50	-0.75	-0.52	USD/BRL	3.7824	+0.23	+1.66
밀	499.50	+0.35	+1.22	USD/CNH	6.8739	-0.03	-0.00
대두	899.75	-0.94	+0.08	USD/KRW	1181.50	+0.31	+0.23
커피	100.65	-0.35	-7.32	USD/KRW NDF1M	1182.71	+0.53	+0.94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081	+3.82	+5.68	스페인	0.352	+1.10	-4.80
한국	1.412	-4.80	-6.50	포르투갈	0.420	+0.90	-4.60
일본	-0.151	-0.40	-2.10	그리스	1.994	+1.30	-13.00
독일	-0.363	+1.50	-5.30	이탈리아	1.515	+2.40	-3.70